

과기정통부, 에이전틱 AI 직접 개발·활용에 나선다.

- AI 개발 역량과 경험 갖춘 젊은 직원들로 개발팀('AI 사피엔스') 구성
- 글로벌 AI 동향분석 에이전트 등 직접 개발, AI 경진대회에도 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신 AI 기술을 가장 먼저 습득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에이전틱 AI를 직접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과기정통부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역량과 경험이 있는 젊은 직원*들이 직접 개발팀(팀명 : AI Sapiens**)을 만들어, 평소 업무 과정에서 불편한 점들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AI 개발을 진행 중이다.

* 인공지능정책기획과 이재호 서기관(팀 리더),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이지성 사무관, 인공지능전환지원과 배준기 사무관,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심항섭 사무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이배현 주무관 등

** Smart Administration, Progressive Innovation, Efficient Next-generation Solutions

개발팀은 첫 결과물로 밤 사이 미국 등 세계에서 일어난 각종 AI 산업·기술 동향과 AI 분야 저명인사의 SNS 게시글 등을 자동으로 검색·정리·분석하는 AI를 개발하여 4월 20일(월)부터 매일 아침 관련 정책을 담당하거나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공유한다.

아울러, '2026 전국민 AI경진대회 - AI챔피언 대회(전문가 트랙)'에도 참여하여 예산요구서·법안 검토 등 대용량 문서 요약표 자동 작성, 출장 정산 등 관서업무 자동화, 한글 회의록 자동 작성 등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비용을 쏟고 있는 과제들을 선별하여 이를 자동화하는 AI에이전트 개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AI총괄부처로서 빠르게 발전하는 AI기술·서비스 동향을 파악하고 AI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AI브라운백을 개최('25.12~, 총 14회)해오고 있다. 또한, AI 협업도구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파악하여 각종 문서 초안 작성에 활용하고, 자료 작성 요청→제출→취합하는 과정을 자동화하였으며, 플랫폼 상에서 보고체계를 대폭 단순화하는 등 업무혁신을 지속 추진 중이다.

특히, 이달 중 류제명 제2차관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이 바이브 코딩을 이용하여 직접 AI서비스를 개발해 보고, AI 에이전트의 업무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에이전틱AI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소직원 AI개발·활용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제 공직사회에서도 AI의 활용 여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빠른 속도로 AI를 도입하여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민간의 사례처럼, 공무원도 AI를 활용하여 업무 추진 방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가장 먼저 AI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업무 혁신 사례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모든 부처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책실 인공지능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공진호 (044-202-6270)
		담당자	서기관	이재호 (044-202-6271)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 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능정보브리핑

